

다가가는 소통의회

다가오는 구민행복

2019.9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2019. 8. 13 ~ 8. 2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목 차

I . 공무국외출장 개요	1
1. 출장목적	1
2. 출장개요	1
3. 이동경로 및 세부일정	3
II . 공식방문기관	5
1. 크로아티아 관광청	5
2. 스플리트시청	14
3.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	19
4. 성 테레사 보육원	26
III . 문화 · 관광자원 개발실태 견학	30
IV . 공무국외출장을 마치며	42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목적

친환경 녹색성장을 통한 도시재생 및 관광정책 등 방문국의 우수 정책에 대한 시찰활동을 통해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배양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출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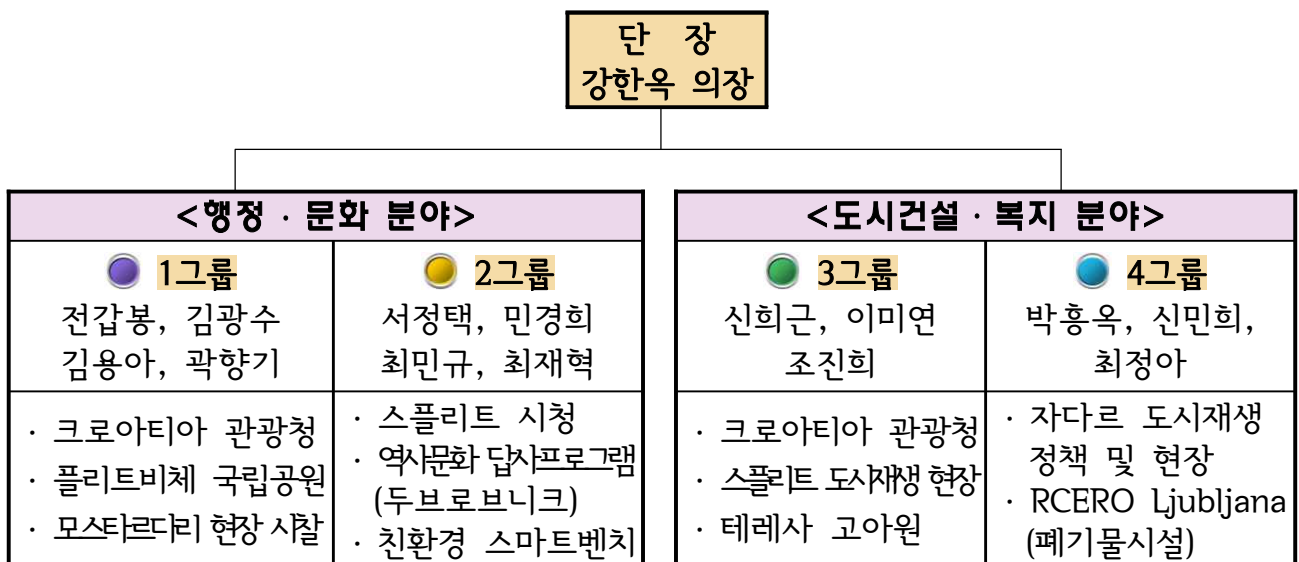
■ **출장기간** : 2019. 8. 13. ~ 8. 21. [7박 9일]

■ **출장국가 및 도시**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 두브로브니크, 스플리트, 자다르, 오파티야
- 보 스 니 아 : 모르타르, 메주고리예
- 슬로베니아 : 루블라냐, 블레드

■ **출장인원** : 총 20명(의원 15명, 직원 5명)

■ **업무분장**



출장자 명단

소속위원회	성명	직위	비고
-	강한옥		
복지건설위원회	최정아	부의장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김광수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박홍옥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아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최민규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조진희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곽향기	의원	
의회사무국	유재용	직원	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이정례	직원	의정팀장
의회사무국	김시영	직원	
의회사무국	임한희	직원	
의회사무국	장우성	직원	

3 이동경로 및 세부일정

이동경로



세부일정

일 자	도 시 명	시 간	주 요 일 정
1일차 8/13(화)	인 천 자그레브	11:05 15:45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자그레브 공항 도착
2일차 8/14(수)	자그레브 두브로브닉	10:00 13:00 22:05 23:00	◎ 공식방문 : 크로아티아 관광청 ◎ 현장시찰 : 자그레브 구시가지 관광자원 개발 및 시장 조성 현장 시찰 ◎ 자그레브 공항 출발 ◎ 두브로브닉 공항 도착

일 자	도 시 명	시 간	주 요 일 정
3일차 8/15(목)	두브로브닉	09:40	● 현장시찰 * 두브로브닉 구시가지 성벽 답사 프로그램 현장 시찰 * 두브로브닉 스르지산 스마트벤치 현황 시찰
	모스타르	14:00	● 현장시찰 : 모스타르 다리 현장 시찰
	메주고리에	18:00	● 메주고리에로 이동
4일차 8/16(금)	메주고리에	08:00	● 스플리트로 이동
	스플리트	11:00	● 공식방문 : 스플리트 시청
		13:30	● 현장시찰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견학(관광산업 비교 시찰)
5일차 8/17(토)	자다르	17:30	● 현장시찰 : 자다르 도시재생사례 - 태양의 인사 현장 시찰
	플리트비체	10:30	● 현장시찰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견학
	오파티야	14:00	● 오파티야 이동
6일차 8/18(일)	오파티야	09:30	● 블레드 이동
	블레드	11:15	● 블레드 도착 후 블레드 성 등 문화탐방
	루블라냐	16:30	● 루블라냐 이동
7일차 8/19(월)	루블라냐	08:10	● 공식방문 : 루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 센터 - RCERO Ljubljana
		12:00	● 루블라냐 현장시찰 : 구시가지 및 루블라냐 성 등
	자그레브	16:00	● 자그레브 이동
8일차 8/20(화)	자그레브	09:00	● 공식방문 : St. Theresa's Orphanage (고아원)
		17:20	● 자그레브 공항 출발
9일차 8/21(수)	인천	11:10	● 인천공항 도착

II

공식방문기관

1 크로아티아 관광청

■ Croatian National tourist Board

- ADD : IBERV TRG 10/IV, 10000 ZAGREB, HRVATSKA
- TEL : +385-1-469 9332
- WEB : <https://croatia.hr/en-GB>
- Presentation by Mr. Sasa Popovac
(Head of the market research department)

■ 방문배경 및 현황

- 크로아티아가 세계관광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을 알아보고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관광명소사업과 연계방법 모색
 - ☞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 노량진수산물시장, 사육신역사공원, 국립서울현충원, 동양충효길, 이수사계길 맛집거리, 노량진 컵밥거리 등
- 찬란한 세계유산과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역사가 흐르는 동작구만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방법 및 발전방향 모색
- 우리구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정책 및 홍보방법 개발

■ 방문개요

- ▶ 일 시 : 2019. 8. 14.(수) 10:00
- ▶ 장 소 : 크로아티아 관광청 회의실
- ▶ 면 담 자 : Mr. Sasa Popovac(시장조사 담당, 부서장)

▶ 내 용

- 크로아티아는 관광진흥을 위해 운영연구, 관광상품 홍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관광 사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입 중임.
- 1,290km의 고속도로, 9개 공항, 7개 주요항구, 350개 항구, 67개 요트 정박지, 53개 해상관광 항구 등의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8개의 국립공원, 11개의 자연공원, 1,244개의 섬, 6,278km의 해안선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10개의 세계 유형문화재와 17개의 세계무형문화재가 있음.
- 관광객 및 관광분야의 투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은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2018년도에는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감.
-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관광진흥을 위해 운영연구, 관광상품 홍보에 대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설계하고 모든 경제 및 기타 관광 과목을 장려하여 해외 관광 대표 사무소와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관광 사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2017년도부터는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자그레브 관광 안내 한국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부에서는 2020년까지 크로아티아 관광업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크로아티아 국가 관광 위원회에서는 2014-2020년 크로아티아 관광의 마케팅 계획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산하에 Croatian National tourist Board를 두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city나 마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국가적으로 21개의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마을단위로 300개의 tourist office(관광사무소)가 있음.
- head office는 수도인 자그레브에 있고, 9월초 서울에도 관광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에 있으며, 총 17개국 16개의 관광사무소가 있음.
- 2019년 예산은 4,300만 유로(602억)이며 주로 크로아티아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국가별, 성별, 연령별 성향을 파악하여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현재 태양과 바다(아름다운 자연) 외 크로아티아의 다른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어 관광객을 다양화 할 수 있을지가 크로아티아 관광청의 핵심과제임.
- 달마티아 (Dalmatia) 지역(아드리아해의 동해안 지방인 자다르, 스플리트 등) 아드리아 해 주변지역에서 전체 관광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륙지방인 자그레브 동쪽은 불과 5%의 관광수입만 발생하여 관광수입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슬라브니아 카운실에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슬라브니아 지역은 와인 농장 등이 유명하여 이를 중점으로 홍보하는 등 관광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아드리아해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 >

- 현재 관광청은 2014-2020 크로아티아 관광업 개발전략인 “CNTB-2020 vision”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즌 없이 일정한 관광객 유치(Lower seasonality), 수익성 증대(Higher profitability), 브랜드가 있는 관광지 외에 관광지를 더 발굴하여 관광산업이 균등하게 발전(More powerful brand)하는 것이 기본목표이며 세부 전략으로는,

1. To increase brand power (국가 브랜드 파워 증대)

: 먼저 국가 브랜드 파워를 증대시키고자 함.

상대적으로 유럽 내 인지도가 낮은 나라로 먼저 국가 인지도를 높인 후 국가 내 관광자원을 소개할 전략으로 2020년까지 브랜드 파워를 50%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2. To increase PPS(pre peak season) arrivals (비성수기 관광객 유치 증대)

: 성수기인 여름 외에 봄, 가을, 겨울 기간 동안 관광객 수를 증대시키고자 함. 2020년까지 비성수기 동안 100만명까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임.

3. To improve daily expenditure (즐길거리를 개발하여 관광수입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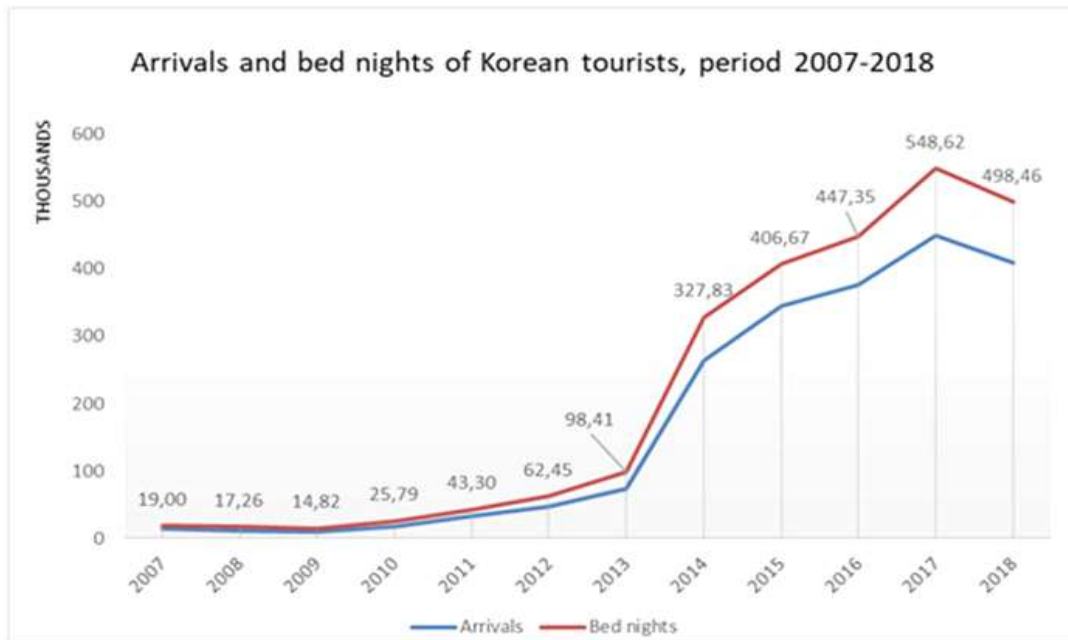
: 관광객의 숙박, 식사 수입 외에 트래킹, 낚시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함.

2020년까지 관광수입을 15%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 2013년 tvn “꽃보다 누나”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여 2017년 54만여명이 방문함. 세계에서 11번째로 크로아티아를 많이 찾고 있는 나라임.

한국 관광객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개인보다는 단체여행을 선호하며, 45세 이상 중년들이 많이 찾고 있음. 또한, 유럽인들이 7~8월 여름철 크로아티아를 많이 찾는 반면 한국인들은 비교적 유럽인들이 찾지 않는 봄, 가을, 겨울 기간에도 꾸준히 방문하여 “CNTB-2020 vision” 중 시즌 없이 일정한 관광객 유치(Lower seasonality)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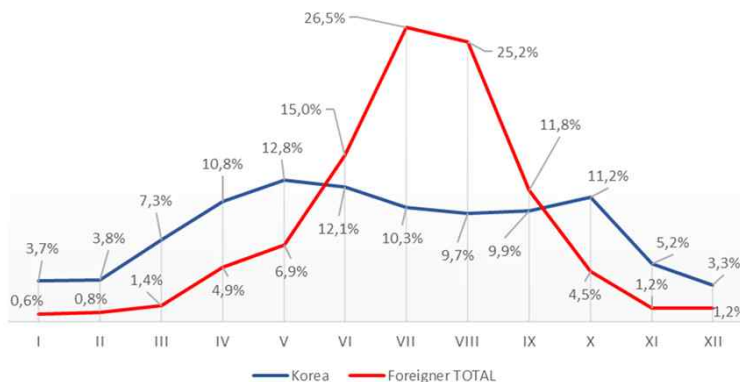
Development of Korean market in Croatia



< 연도별 한국인 방문객 추이 >



Seasonality of tourism flows from South Korea



Almost **80%** of foreign arrivals are recorded in period June-September, while Korean tourist achieve around **42%** of arrivals in the same period.

< 계절별 한국인 방문객 현황 >

■ 질의 응답

Q. 크로아티아에 한국에서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아는데 한국에서 스스로 파견한 것인지 아니면 크로아티아에서 요청한 것인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A. 6명의 한국경찰이 7~8월에 파견되었음. 크로아티아에는 독일,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중국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의 경찰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는 크로아티아 정부에서 요청한 것임. 파견된 경찰들은 자국 관광객들의 치안이나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크로아티아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법처리 등을 하고 있음.
단, 마약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의 법적용을 받기도 함.

Q. 관광의존도가 높은 나라(세계 2회)인데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대처 방안은?

A. 현재까지 크로아티아에는 큰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1991년~1995년 발칸 전쟁(보스니아 내전) 때가 가장 큰 타격이었으나 북서부에는 전쟁 중에도 관광이 이루어졌었으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등이 발생한 적도 없음.
몇 년 전 시리아 전쟁시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었을 당시 크로아티아로도 많은 난민이 유입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크로아티아는 난민들의 정착지가 아닌 이동경로 중 하나여서 지나가는 문제로 그침.
국가 이미지 중 하나가 "Safety Croatia"일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대비가 가능함.

Q. 자연환경을 해칠 경우 벌금 등 제재 수단은?

- A. 기본적으로 도시에는 경찰이, 자연 관광지에는 순찰대원이 순찰을 돌고 있음.
간혹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거의 드문 일임.
유럽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도 3일 실내 수업 후 1일 야외 수업을 진행하는 등 자연을 다니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

Q.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하나?

- A. 전체 인구 중 관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60~80만명으로 추정됨.
그러나 실제로 관광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성수기인 7~8월의 경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하며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관광객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구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제조 및 유통 등 관련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Q.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도 색깔이나 형태 등 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본 엘라치치 광장 주변에는 오래된 아름다운 건물 사이로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들이 있던데 이런 규제는 관광지가 많은 해안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 내부에도 규제 하는지?**

- A. 해안과 도시의 규제는 같음. 반 엘라치치 광장 주변의 투박한 현대식 건물들은
과거 실용성을 추구하던 사회주의 시대 때 지어진 건물들이며 현재는 부득이
하게 신축 건물을 지어야 할 경우 유리 건물로 짓게 하는 등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시 사 점

- ▶ 크로아티아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발전전략과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수입이 전체 GDP의 15~18% 차지하고 있음.
- ▶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유럽의 관광산업이 친환경적인 관광정책과 더불어 현재의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착안점을 두어 앞으로 동작구의 도시 개발정책과 관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음.
동작구만의 지역 관광 상품을 브랜드화하여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함.
- ▶ 또한, 한국인 내방객을 위해 한국인에 대한 분석자료 만들어주었는데 이는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음.



< 크로아티아 관광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및 기념사진 >

2 스플리트 시청

GLAD SPLIT

- ADD : Obala kneza Branimira 17 SPLIT
- TEL : +385 21 310-093
- WEB : <https://split.hr/>
- Presentation by 스플 고즈치(스플리트시 국제협력 기구 의장)
 안티 지그리치(시의회 도시계획기술관련 분야 담당자)
 안토니아 니모비치(도시계획 발전계획 협회의 담당자)
 카타리나 플리치(도시계획 및 환경보호 분야 담당자)

방문배경 및 현황

- 과거(유적지)와 현대(기술, 산업발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
 ☞ 우리구 문화유산과 발전의 조화
-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

- 스플리트시는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동부 아드리아 해안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 중심지임. 아드리아 해와 마주하는 항구 도시로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물러난 이후 305년 스플리트에 거대한 궁전을 지어 본격적으로 도시로 발전하게 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적인 항만 시설이 갖추어졌고 달마티아 지방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아 중요한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
- 인구는 17만 여명으로 이는 크로아티아 공화국 전체 인구의 4%이상을 차지하며 올해는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과 역사 건축물이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임.
-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적지 외에도 기술, 기관산업, 건설 등이 복합적으로 발전한 도시로 2030년까지 기술분야 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방문개요

- ▶ 일 시 : 2019. 8. 16.(금) 11:00
- ▶ 장 소 : 스플리트 시청 대회의실(2층)
- ▶ 면 담 자 : 스플 고즈치(스플리트시 국제협력 기구 의장)
 안티 지그리치(시의회 도시계획기술관련 분야 담당자)
 안토니아 니모비치(도시계획 발전계획 협회의 담당자)
 카타리나 플리치(도시계획 및 환경보호 분야 담당자)
- ▶ 내 용
 -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 제2도시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유적지 외에도 기술, 산업, 건설이 발전한 항구도시임. 주요 산업은 관광산업과 조선업으로 교통의 중심지임.
 - 2019년은 스플리트 도시가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관광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분야 외 기술, 산업분야 발전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2030년까지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음.
 몇 해 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삼성전자 공장도 방문한 경험이 있음. 서울에서 느낀 점은 도시의 규모, 차량, 건물이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돌아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한국의 발전된 기술공업 분야가 인상 깊어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기업이나 학교 등과 협력하여 발전하기를 희망함.
 -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6명의 한국 경찰 중 2명이 현재 스플리트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2명의 경찰과 미팅을 가져 한국인 관광객의 치안과 보호에 대하여 논의한 적도 있음.

■ 질의 응답

Q. 스플리트 의회의 조직구성 현황은?

A. 스플리트 의회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분야, 예산에 대한 분야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음. 총 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Q. 자연환경이 참 아름다운데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시 발전을 하는 스플리트만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방법이 있는지?

A. 기본적으로 환경보호와 도시발전은 상반된 개념이며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자연을 어쩔 수 없이 파괴하게 되는데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따름.

중요한 점은 스플리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도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지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음.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크로아티아 국내법 뿐 아니라 더 까다로운 EU규정을 따라야 해서 더욱 어려움이 따름.

현재 예전에 없던 인허가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Q. 스플리트에서 전기 자전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A. 스플리트는 인구가 7만명인데 교통수단은 9만 여대만 등록되어 있는 등 교통수단이 부족하며 언덕이 있는 도시라서 자전거가 좋은 이동 수단이 되고 있음.

일반자전거 운영 시스템에 최근 전기자전거 시스템이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 전기자전거 운영 시스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전거 보관대 간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끌고루 분산시켜 놓아야 하는데 그 이동 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음.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이며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예정임.

Q. 스플리트의 환경 친화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EU는 2015년 "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패키지(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 계획을 수립하였고 크로아티아 역시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에 NECP 전략을 EU 집행위에 제출한 바 있음.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해변의 풍부한 태양,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 풍력 발전 잠재력이 풍부함.

크로아티아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태양열 발전용량을 2020년의 604%, 풍력 발전용량은 61% 증대하겠다는 공격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신축건물을 지을 시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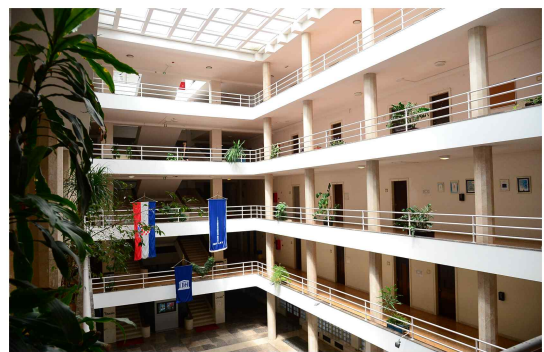
201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는 원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판을 시에서 교체해주고 있음.

■ 시 사 점

- ▶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도시재생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도시임.

오래된 건축물과 현재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적지가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있음.

- ▶ 동작구만의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룰수 있는 도시재생 및 대표적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으면 함.(ex. 동작충효길)



3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

RCERO Ljubljana Regional Waste Management Center

- ADD : CESTA DVEH CESARJEV 101, 1000 LJUBLJANA, SLOVENIA
- TEL : +386-1-477 9775
- WEB : <https://www.vokasnaga.si/>
- Presentation by 샤샤(총괄 담당자, VOKA SNAGA 소속)
리나(대외홍보 담당자, RCERO 소속)
라냐(현장 담당자, VOKA SNAGA 소속)

방문배경 및 현황

-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방법 및 재활용방법 비교분석
- 환경친화적인 업무처리 방식 벤치마킹

- 류블라냐 지역폐기물 관리센터(RCERO Ljubljana)는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지역 쓰레기 폐기물 관리센터로 슬로베니아 전체 쓰레기의 1/3을 처리함.
- 폐기물 관리센터는 폐기물 회수시설, 침출수 처리장 및 확장된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립지는 2009년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처리 공장은 2011년, 가장 까다로운 바이오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2016년부터 가동되고 있음.
- 2014년 직원의 업무와 개인 생활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 조직 개선,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및 업무 환경의 품질 관리를 목표로 동기 부여, 회사 소속, 직원 만족도,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비영리 비정부기구인 Ekvilib Institute가 노동, 가족 및 사회부와 협력하여 수여하는 가족 친화적 인증을 획득하기도 함.
- RCERO는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를 총괄하고 있으며 VOKA SNAGA는 상하수도, 쓰레기 재활용 등 실질적인 처리를 하는 회사임.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19.(월) 08:10

▶ 장 소 : RCERO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 세미나실(2층)

▶ 면 담 자 : 샤샤(총괄 담당자, VOKA SNAGA 소속)

리나(대외홍보 담당자, RCERO 소속)

라냐(현장 담당자, VOKA SNAGA 소속)

▶ 내 용

- 슬로베니아는 인구 200만명의 작은 나라로 수도 류블라냐에 3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 전체 쓰레기의 1/3을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관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음.
- 2009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하였고 2012년에 새로운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도입, 2016년부터는 화학성분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보통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하면 페트병이나 유리 등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쓰레기들은 이곳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바이오 쓰레기(음식물쓰레기) 두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
-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5~7%는 메탈, 플라스틱이 나오고 70% 정도는 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남게 되어 에너지 발전용 원료로 쓰이고 있음.
바이오 가스도 발생이 되는데 이 또한 태워서 전기를 만들거나 열을 만들어 생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화학적인 유해성분도 5%정도 나오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땅에 묻어 매립한다고 함. 이는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매립양이라고 함.

-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 건설 비용은 총 155백만 유로(2천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중 70%는 EU에서 지원을 받았음.
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EU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나라에서 정하는 대로 운영하고 있음.
-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가 유럽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지비용 또한 다른 나라 유사한 재생센터에 비해 적게 들고 있음.
EU전체 쓰레기 재생율은 5%에 그치지만 류블라냐 폐기물 관리센터는 66%의 재생율을 보임.
- 슬로베니아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06년부터 법제화됨. EU 전체의 제재는 2023년부터 시행이며 현재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EU보다 슬로베니아가 보다 일찍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음.
-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는 쓰레기를 재생처리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애초에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임.
시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따분해하거나 거부감 없이 쓰레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함.
-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종종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는데 여러 이벤트 중 하나는 TV 방송국을 초청하여 사람들 앞에서 무작위로 쓰레기통을 뒤져 뭐가 나오는지 생방송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하는데 한 번은 쓰레기통에서 총알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함.
그 외에도 광고 카피나 슬로건 등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 따분해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다고 함.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로청소 시 예전에는 화학제품을 이용하여 청소하였으나 현재는 코코넛, 팜오일, 감자,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 캐미컬 제품을 이용하여 도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청소에 사용하는 물 또한 일반 빗물을 받아 이용하고 있음.

또한, 시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기부하면 수리나 세탁을 거쳐 필요한 사람들이 1~3유로만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는 샵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여개의 품목이 거래된다고 함. 이 샵은 단순 판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리방법 등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있음. 용기 없이 세제 등을 판매하는 무인샵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직접 용기를 준비해가서 필요한 만큼의 세제를 담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함.

■ 질의 응답

Q.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 운영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성과에 따라 EU 지원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지?

A. 성과라는 개념은 없음. 있다고 해도 EU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판단함. EU의 판단은 이미 폐기물 관리센터 건립여부 결정시 끝났고 건립 이후 운영은 각 나라의 환경문제이므로 각 나라에서 결정하고 있음.

EU의 분담금 납부액은 각 국의 인구 대비,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서 책정되는데 슬로베니아도 EU의 지원금을 받고는 있지만 어차피 EU분담금도 납부하고 있고 과거에는 분담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분담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분담금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하고 있음.

Q. 시설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용역을 주는 것인지?

A. 시설은 세계적인 오스트리아 건설회사인 Strabag 社에서 준공하였는데
따로 용역을 주거나 로열티를 지불하지는 않음. 단, 초기 건설비용이
한화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됨. 독자적인 기술이므로 비용이 비싼 편임.

Q. 처음 센터 건설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A. RCERO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를 건설하기 전에 이미 자체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으며 원래 오픈된 공간에서 처리하던 것을 RCERO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가 생기면서 실내에서 처리하게 되어 악취, 먼지
등이 줄어들어 오히려 주변 주민들이 좋아함.

Q. 연간 21,0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와 150,000톤의 일반 쓰레기를 처리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A. 슬로베니아 전체 쓰레기의 40%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6개의 처리센터가 있음.

슬로베니아 전체에 RCERO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처리장이 있음.

Q. 쓰레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처리되어 나갈때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A.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두 달(산소를 접촉시켜 처리 한 달 산소 차단 처리 한 달)이
소요되며 일반쓰레기의 경우 몇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됨.

■ 시 사 점

- ▶ 면담을 마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진 촬영이 불가하여 사진을 남기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음.
처리 시설이 크고 현대화 되어 있었으며 쓰레기 처리량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나 먼지, 소음 등이 심하지 않았음.
쓰레기들은 먼저 종류와 크기별로 분리되었고 그 중 유리나 플라스틱 등은 따로 모아져 재활용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으며 바이오 쓰레기 (음식 쓰레기)는 산소를 접촉시켜 처리하는 과정이 한 달, 산소를 차단하여 처리하는 과정 한 달을 거쳐 총 2개월에 걸쳐 일반적인 흙의 형태처럼 처리되고 있었는데
악취가 거의 없었고 처리된 성분은 실제 비료로도 쓰이는 것에 놀라웠음.

- ▶ 류블라냐 지역 폐기물 관리센터를 둘러보고 크게 느낀 점은 우리나라처럼 단편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다는 것임.
우리나라도 폐기물 관리센터의 재활용률 성과 뿐 아니라 사전에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일이나 사후 중고거래 샵의 활성화, 수리방법 교육 등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음.



< 방문객 접대용 물잔(알루미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과 폐욕조를 이용한 테라스 의자 >



< 페드럼통을 이용한 사회자 단상 >

4

성 테레사 보육원

■ St. Theresa's Orphanage

- ADD : Vrhovec29, 10000 Zagreb, Croatia
- TEL : +385-99-7334 519
- WEB : <http://vrtici.karmelbsi.hr/>
- Presentation by Sr. Matea Cerovecki(마테아 수녀)

■ 방문배경 및 현황

- 아동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크로아티아의 복지정책과 우리구 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우수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구민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성 테레사 보육원은 1998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19세기 후반은 산업화로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로 많은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했으나 기본적인 요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함. 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일부 부모는 자녀를 입양시키거나 돈을 받고 아이를 파는 등의 비극이 생김.
이에 성 테레사는 종교 공동체를 설립하여 그러한 자녀들을 돌봐줄 시설을 설립하게 됨.
- 1925년 4월 자그레브에서 첫 문을 열었고 첫 해 97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중 70명은 미취학 아동이었으며 27명은 취학 아동이었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현대적인 형태의 보육원의 모습을 갖추.

■ 방문개요

- ▶ 일 시 : 2019. 8. 20.(화) 09:00
- ▶ 장 소 : St. Theresa's Orphanage 로비 및 기숙사, 정원 등
- ▶ 면 담 자 : Sr. Matea Cerovecki (마테아 수녀)
- ▶ 내 용
 - St. Theresa 보육원에는 14세까지만 케어 받을 수 있고 15세 이후에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기관에서 대학입학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14세까지만 보호하는 이유는 15세 이상 아동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임.
 - St. Theresa 보육원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들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의 알코올 중독 등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을 위탁해서 케어해주는 시설임.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들은 국가에서 입양 가정을 연계해주고 있음.
 - 부모의 면접 시간이나 횟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 과거에는 먹고 자는 기본적인 케어를 위해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 많았는데 현재는 아동의 인격적인 케어에 중점을 맞춰 인원을 제한하고 있음.
 - 현재 크로아티아 내에서 수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보육원으로 카톨릭 가정의 아동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현재 무슬림 가정의 아동도 있으며 위탁받은 아동에게 강제로 세례를 받게 하는 등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전혀 없다고 함.

■ 질의 응답

Q. 보육원에 양육 교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A. 한 그룹이 10명 이상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10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10명까지가 가족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수로 판단되어서 임. 따라서 현재는 27명의 아동만을 케어하고 있음. 한 그룹에 양육자가 3명이 있음. 수녀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심리학자, 언어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양육자도 있음. 이런 양육자들은 테레사 보육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협력하고 있음.

Q. 이웃들이 자신의 자녀가 보육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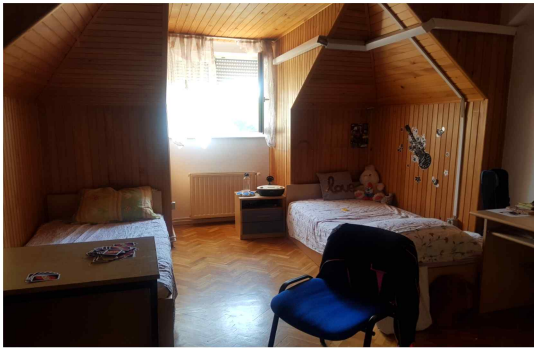
A. 주민들의 인식이 보육원의 아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아이들이 사는 집이 보육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특별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녀님 등 양육자들이 가족처럼 대해주기 때문에 아동들도 자신을 크게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음.

Q. 1:1후원 등 아동에 따라 후원금 차이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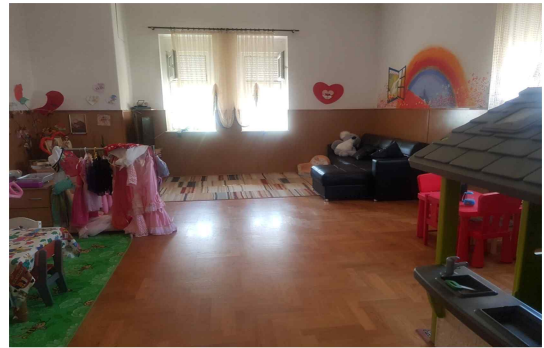
A.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원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성을 어필하여 많은 기부와 후원을 받고 있음. 한국처럼 아동과 후원자가 1:1 후원도 있음.
후원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전쟁 때 해외로 이주한 크로아티아계 출신들의 후원자가 많다고 함.

■ 시 사 점

- ▶ 먹고 자는 기본적인 케어보다 인격적인 케어에 중점을 두고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임. 우리도 기본적인 케어 외에 아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격적 케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 작은 규모의 보육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녀님,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양육자가 있어 다양하고 부족함 없이 케어받을 수 있으며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는 한 보육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군데 소속되어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인상적임.



< 일반 가정같이 꾸며진 방 >



< 거실 같은 공통공간 >



< 성테레사 고아원의 수녀님과 질의응답 >

III

문화 · 관광자원 개발실태 견학



자그레브 구시가지 현장 시찰

-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에서 유일하게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권으로 도시의 구시가지는 1세기 로마인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었음.
- 크로아티아의 독립 이후에는 중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부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발칸 반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중부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들의 본사가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음.
- 자그레브성당을 비롯하여 성마르코 성당, 성 캐서린 성당, 자그레브 국립극장 등 중세도시의 품격 있는 건물들이 가득한 곳과 경제중심지임을 실감할 수 있는 신도시 신자그레브까지 과거와 현재가 혼합된 매력적인 도시로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닿고 있음.

■ 자그레브 대성당

- 자그레브 대성당은 1000년대 후반부터 1200년대 초반까지 무려 120여간이나 지어졌다고 함. 그러나 성당은 전쟁과 대지진으로 파괴와 재건을 반복했고 지금의 성당은 1900년대에 완공된 것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딕양식에 네오고딕양식을 접목, 그 예술적 가치가 뛰어남. 쌍둥이 첨탑의 높이는 108m이며 대성당은 1993년에 발행된 크로아티아 화폐 1000쿠나 지폐에 등장하게 됨.

- 두 개의 쌍둥이 침탑은 지진으로 인해 현재는 높이가 다르다고 함. 성당은 거의 항상 보수 중이어서 공사중이 아닌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함.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 훼손시 성과와 시민민원을 감안하여 근본적으로 수리하지 않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재빨리 보수를 끝내버리는 것과 대조적임. 우리나라도 문화재 복원시 성과에 연연해 하지 말고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복원해야 할 것임.

■ **돌라치 시장(Dolac Market)**

- 자그레브 대성당 근처에는 돌라치라는 재래시장이 있음. 자그레브 중앙역에서 도보 15분임 소요됨. 매일 아침 일찍 시작해 13~15시면 끝나는 시장임. 규모도 크고 현지인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함.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와 과일을 주로 판매함.
- 시장은 빨간색 파라솔로 통일되어 있는데 진열된 색색깔의 신선한 과일과 어우러져 상큼함과 활기를 더해줌. 멀리서 보면 카페거리로 보일 정도임.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과 대조적임.
- 돌라치 시장에는 ‘쿠미차 바리차’라 불리는 동상이 유명한데 이 동상은 2006년에 세워진 것으로 대모(代母) 또는 농촌 아주머니란 뜻이라고 함. 전통 의상을 입은 아주머니는 자기 몸만큼 크고 넓적한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거기에 수건을 두른 모습임.
- 연수단이 처음 도착해 시장을 둘러보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오자 시장 영업이 끝나 이미 청소를 마친 상태였음. 깨끗하게 정리되어 넓은 광장이 드러난 모습이었는데 몇 시간 전까지 재래시장이 열렸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반 엘라치치 광장(Ban Jelacic Sqaure)

- 돌라치 시장 아래쪽은 자그레브 구시가지의 메인 광장인 반 엘라치치 광장이 있음. 엘라치치 광장은 차가 없는 광장으로 트램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임. 자그레브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이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첫 관광지임. 광장 한 가운데는 엘라치치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데 엘라치치는 184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침입을 물리친 크로아티아의 영웅임.

■ 성 마르코 성당(Church of St. Mark)

-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으로 레고나 테트리스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지붕으로 유명함. 가장 오래된 구역인 그라데츠의 중심부에 위치했으나 성당 양 옆으로 시청과 의회가 위치해 있음. 성당의 외관은 고딕 후기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되어 있는 등 재건 지붕에는 두 가지 문양이 있는데, 성당을 마주보고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 크로아티아 문양이고 오른쪽이 자그레브의 문양임. 이 지붕은 13세기에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는 없었다가 19세기에 재건할 당시에 추가한 것임.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음.

■ 시 사 점

- ▶ 우리나라 재래시장도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장려 및 배달서비스 시행과 지자체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통인시장 ‘엽전도시락’ 체험 등 외국인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고는 있으나 여전히 낙후되었고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강함.

- ▶ 우리 전통시장도 진입도로,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등 설치에 그치지 말고 판매 가판대를 깨끗하고 보기 좋게 통일하는 등 큰 골격 외 세세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좋을 듯함.
- ▶ 우리구도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상징적인 광장을 만들 필요성 있음



▶ 두브로브닉 구시가지 성벽 답사 프로그램 현장 시찰

- 크로아티아의 최남단에 위치한 아드리아해의 대표적 휴양도시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두브로브닉을 보지 않고 천국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아름다운 관광지임. 유럽인과 일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순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한 없이 푸르른 아드리아 해에 신기루처럼 떠 있는 성채도시임.
두브로브닉은 세계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할 만큼 수준 높은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살던 지상천국으로 “아드리안의 진주”라 불림.
- 올드타운 전체가 성곽으로 되어 있으며 두브로브닉 전체를 한 눈에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스지르산 전망대로 올랐음. 케이블카를 타는 시간은 3분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으나 아름다운 두브로브닉과 아드리아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았음.
- 두브로브닉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13~16세기에 만들어진 높이 25m, 길이 2km에 이르는 견고한 성벽으로 한 바퀴 도는 데는, 두어 시간이 소요됨. 성벽투어는 좁다란 성벽을 따라서 도는 것인데 한 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도 없는 길을 걷는 것은 조금 힘에 부치기도 함.
- 깎아지른 듯한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진 성벽은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밖으로는 아드리아해의 망망대해가 끝 없이 펼쳐지고 있었고, 성곽 안쪽으로는 붉은색 지붕으로 가득 찬 구시가지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옴. 그 안에는 유적지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빨래가 걸려 있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현지인들의 일상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으며 성벽을 거닐다 보이는 집들은 물론이거니와 정겹게 널려있던 빨래도 마냥 한 폭의 그림같이 느껴짐.



▶ 모스타르 다리 현장 시찰

- 네레트바(Neretva) 강의 깊은 계곡에 우뚝 솟은 역사적인 도시 모스타르(Mostar)는 15, 16세기 오스만의 전초 기지로 건설되어 19, 20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에 발전하였다. 모스타르는 옛 터키 스타일 주택과 '스타리 모스트(Stari Most)'라는 옛 다리로 오랫동안 유명했다. 하지만 1990년대 전쟁 때문에 역사 도시와 유명한 건축가인 시난(Mimar Koca Sinan)이 건축한 옛 다리가 파괴됨. 최근에 옛 다리와 옛 시가지에 있던 건물들이 유네스코에 의해 설립된 국제과학위원회의 기부로 재건 또는 복원되었다. 옛 다리 지역은 오스만 제국 이전의 건축, 동 오스만제국의 거축, 지중해 및 서부 유럽의 건축 양식 등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의 훌륭한 사례이다.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Old Bridge Area of the Old City of Mostar)는 국제적인 협력과 다양한 문화적·민족적·종교적 공동체의 공존과 화해의 상징이다.

- 스타리 모스트 오래된 다리는 1566년 발칸전쟁 이후 오스만 제국의 황제의 명에 따라 건설된 곳으로 다리양쪽 끝의 탑과 그 곳을 지키는 오스만 부대의 이름에서 유래됨. 모스타르 다리의 수호자라는 뜻으로 원래 기능은 자신의 군대가 달마티아 해변 부유한 도시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음. 보스니아의 은을 운송하고 달마티아 염전의 소금을 내륙지방으로 수송하는 기능이었는데 1991년부터 내전 속에 크로아티아에 의해 파괴되고 잔혹한 유혈사태를 상징하게 되었고 2004년 다시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개통하게 됨. 지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내전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상처가 많은 곳, 건물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한 곳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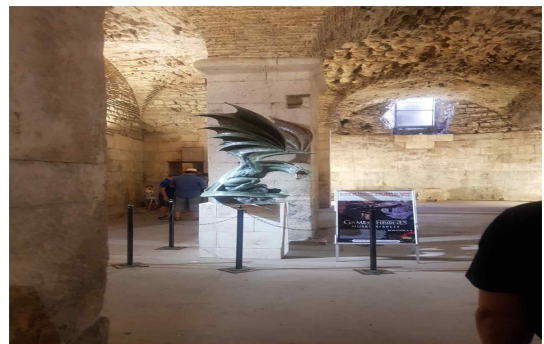


▶ 디오클레시안 궁전, 아드리아해 해안

- 디오클레시안 궁전은 고대 로마황제 중 유일하게 생존 중 퇴위한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고향 솔린과 가까운 이곳에 궁전을 세우고 여생을 보냈다고 함. 이 궁전은 295년부터 305년에 걸쳐 건축했으며 유럽 각지에서 가져온 최상급의 대리석과 석회암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스팅크스, 기둥까지 가져와 장식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고 함.
- 라바거리 초입에 위치한 지하 궁전을 통해 올드타운으로 들어갔는데 지하는 뜻밖에도 일반 기념품 상점으로 꾸며져 있었음. 지하 궁전은 바로 위에 있던 황제의 숙소와 동일한 구조로 건축되어 있으며 원래는 식당, 와인 및 곡식 저장 창고 등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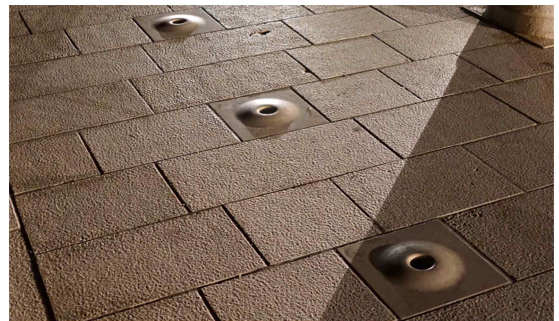
■ 시사점

- ▶ 성 주위에는 중세 코스튬 입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줌.
관광객은 1유로 정도의 적은 돈을 지불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현지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우리구도 매년 개최되는 '정조대왕능행차' 행사 등에 용양봉저정 등을 개방하고 정조대왕 의상을 대여해주고 사진을 찍어 주는 등 "정조대왕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도 좋을 듯함.



▶ 자다르 도시재생 사례 : 태양의 인사 현장 시찰

- 자다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용단폭격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 2000년대 재건 프로젝트로 현재는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임.
- 바다 오르간(Morske Orgulje)은 2005년 2차 대전 피해를 복구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짐.
바다 오르간은 바닥에 구멍들이 나있는데 이 구멍에 연결된 35개의 파이프가 바다로 이어져 있으며 파도에 의해 파이프에 공기와 밀려와 소리를 내는 원리임.
- 태양의 인사(Pozdrav Suncu)는 바다오르간 바로 옆에 있으며 현대미술 같은 설치물로서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한 집열판이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아름다운 색의 영상을 쏘아냄.



■ 시 사 점

- ▶ 제대로 만든 도시조형물 하나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접목되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음.
우리구에서도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도시관광객을 끌어들이길 수 있으면 좋을 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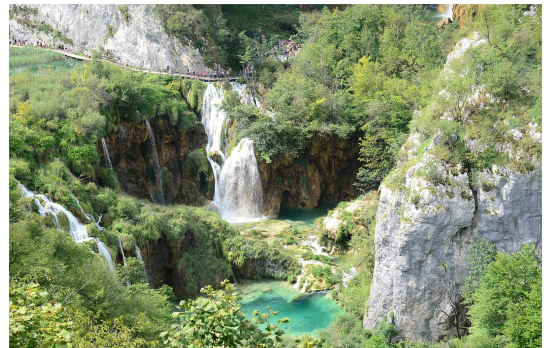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 1949년 크로아티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하는 천혜의 비경으로 꼽히며 영화 '아바타'의 배경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 함.
-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디나르알프스 산맥을 따라 발달한 카르스트 지형으로 공원의 호수들은 여기서 발원한 코라나(Korana) 강이 석회암 지대를 침식하면서 만들어진 것임. 19세기부터 관광지로 활용되었으며, 1949년 첫 번째로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됨. 공원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100배인 30,000헥타르에 달함.
- 공원에서는 A, B, C, E, F, H, K의 7개 코스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알맞은 동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입장료는 계절마다 달라지는데 입장객이 적은 겨울에는 성인 1인에 60쿠나이지만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250쿠나로 오름.

■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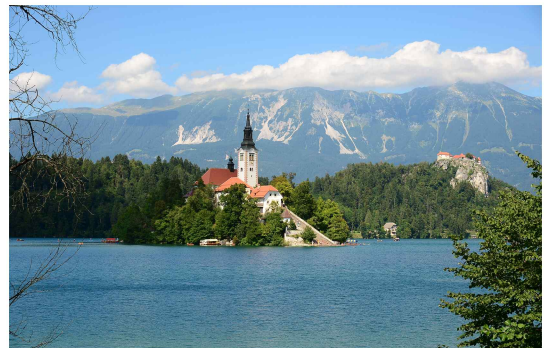
- ▶ 입장표에는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적혀 있는데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입장할 수 없음. 이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험하고 호수를 건너기 위한 모터보트도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 또한 자연보호를 위해 추가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함.
- 최대한 자연을 해치지 않은 관리를 하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국립공원을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환경을 위한 첫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 블레드성(Blejski grad) 견학

- 블레드성은 슬로베니아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한 곳으로 알프스산맥의 빙하가 녹아서 생긴 자연호수인 블레드 호로 유명하며 호수 주위에 바위로 만든 블레드 성(Blejski grad)이 있음.
- 블레드성은 1042년에 건축했고 800여 년간 유고슬라브 왕가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경을 자랑하며 멀리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산까지 볼 수 있음. 계속 증축되거나 보수되면서 로마네스크, 고딕 등 온갖 건축양식이 뒤섞여 있음.

- 블레드성에 오르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블레드 호수를 한 분에 볼 수 있으며 성 내부에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어 민속과 역사, 지리 분야에서 블레드 지역의 오랜 역사를 볼 수 있음.
- 사회주의 시절 유고 연방의 티토 대통령의 별장도 블레드 호수 주변에 있었다고 함. 정상 회담 장소로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쿠바 카스트로 등 당시 각국의 지도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고 함.
- 또한, 블레드성에서는 매년 한 차례 중세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 축제도 열고 있다고 함. 기사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검투사 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열리는 이 행사는 Medieval Days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최된다고 함.
- 호수 중앙에는 성모승천 성당이 있는 블레드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노를 젓는 전통배 플레트나라고 하는 나룻배나 보트를 타야하는데 보트를 타고 호수와 산의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
보트의 노를 젓는 사공은 주로 대를 이어서 업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연봉이 상당하다고 함.



IV

공무국외출장을 마치며...

■ 의장 강 한 옥

이번 연수는 발칸 3국으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통한 도시재생 및 보육 복지정책, 관광정책에 대한 연수를 통해 동작구의 적용 사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사당4동과 상도4동에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저소득층의 소외되고 방치되기 쉬운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보육정책,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과 용양봉저정 부근의 관광명소 한강대교의 관광사업 연계를 위한 정책개발의 연수를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발칸 3국의 자연친화적인 도시들은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보육원과 폐기물 관리센터는 성과보다는 인식개선사업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다는 인권 존중으로 당연히 불만을 받아야 하고 생활 환경에 따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보았고, 생활쓰레기 처리 시 단속보다는 환경을 생각하여 당연히 줄이고 바르게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개선사업을 어릴 때부터 시민의식교육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정책은 당연히 동참한다는 시민의식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동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5명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일정과 방문 기관, 비용 등에 관한 심의를 받아 해외공무연수가 외유성이 아닌 내실 있는 공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의회에 보내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 정 아

발칸 3국(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도시재생과 쓰레기 재활용처리 정책, 복지 정책(보육,노인등)과 관광정책을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동작구의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사당4동과 상도4동에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본동과 사당4동 도시뉴딜사업이 선정되면 이번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쓰레기 재활용처리 정책을 응용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 저소득 계층의 보육정책,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과 한강대교의 100년다리 브릿지와 한강수변테크 개발과 용양봉저정까지 연계하여 동작구의 관광정책을 발칸3국의 자연친화적인 관광정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서울시의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칸3국의 공무연수는 한강대교의 관광사업 연계를 위한 정책 개발의 연수를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발칸 3국의 자연친화적인 도시들은 개발보다는 자연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만들고 있고 보육원과 폐기물 관리센터는 재활용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운 것들이 동작구 발전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5명의 외부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일정과 방문기관, 비용 등에 관한 심의를 받아 해외공무연수가 외유성이 아닌 내실 있는 공무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작구의회에 보내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